

현대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또 걱정도 많다. 물론 이런 이유뿐만은 아니지만 전보다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는 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사람의 수도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의 의견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담배를 피워서 안된다고 금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광고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라면 이성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아직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호기심이 생겨 피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지도 모른다.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라든지 광고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회사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그러나 흡연자를 위해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이 전부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워서 안된다고 법률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으로서 금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흡연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사회속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또 자기중심의 생활만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편리하기 위해 다른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전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